



#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1. 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 ▲ 2011-1113 신문윤리강령 위반

江原日報 발행인 이 희 종

#### <주문>

江原日報 2011년 4월 12일자 9면 「카다피 즉각 휴전·반군과 대화 등 AU 중재안 수용」, 4월 15일자 9면 「“카다피엔 ‘한 목소리’ 군사작전은 ‘딴 목소리’」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유>

1. 江原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월 12일자>=『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아프리카연합(AU)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밝혔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AU 중재위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날 리비아를 방문한 주마 대통령은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관저 바브 알-아지지야에서 카다피와 수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면담을 끝낸 주마 대통령은 카다피와 진행해야 할 임무를 완료했다면서 리비아 정부 측이 AU가 제시한 ‘로드맵’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후략)』

<4월 15일자>=『리비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협의기구인 리비아 ‘연락그룹’이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퇴진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첨예한 이견을 드러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연락그룹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최종 성명을 통해, 반정부군의 대표기구인 국가위원회를 리비아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 방침을 밝혔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江原日報의 위 기사들은 각각 연합뉴스 4월 11일 09:40 송고 「“카다피, AU 중재안 수용”(종합)」, 4월 14일 06:24 송고 「“카다피 떠나야”..군사개입 수위엔 이견(종합2보)」 제하의 기사 내용의 상당 부분을 전재한 것이다.

江原日報는 그동안 본 위원회가 통신기사의 출처명시와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쳐 <주의>와 <경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국제면 안의 일부 박스 기사에 대해 연합뉴스 크레딧을 계속 붙이지 않고 있어 귀 신문의 신뢰성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신생 지방신문을 제외하고 전통 있는 지방신문들은 크고 작은 기사를 가리지 않고 또 국제면이나 체육면 등 면의 구분 없이 통신기사의 전재를 선명하게 밝히고 있어 이 분야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江原日報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아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35 신문윤리강령 위반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주문>

호남매일 2011년 5월 9일자 12면 「보스톤, 마이애미에 2패 뒤 첫 승」 외 스포츠 기사 5건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호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보스톤이 2연패 뒤 첫 승을 신고, 반격에 나섰다.

보스턴 셀틱스는 8일(한국시간)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TD가든에서 열린 마이애미 히트와의 2010~2011 미국프로농구(NBA) 동부콘퍼런스 2라운드(7전4선승제) 3차전에서 97-81로 대승을 거뒀다.

마이애미 원정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패배하며 위기에 놓였던 보스턴은 홈에서 열린 3차전을 승리로 장식, 반격했다.

케빈 가넷이 28득점을 몰아넣고 18개의 리바운드를 걷어내며 골밑을 든든히 지켰다. 폴 피어스가 27점(5리바운드 5어시스트)을 몰아쳐 가넷과 함께 팀 승리를 짙게 이끌었다.

레이 앨런은 3점포 두 방을 터뜨린 것은 포함해 15점을 넣는 등, 외곽에서 힘을 보탤다. 라존 론도는 득점은 6점에 그쳤으나 어시스트 11개를 배달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은 뉴시스가 제공한 기사를 부분적으로 고쳐 전재하고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3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1년 4월 25일자 29면 「윌리엄·미들턴 커져가는 ‘영국의 사랑’」·「켈리·키퍼즈 떠오르는 ‘미국의 사랑’」이란 제목의 기사에 딸린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문화일보가 게재한 위 2건의 사진은 뉴시스가 제공한 것임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 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 용	결정
2011-1114	광주매일신문	11 04 11	「추신수, 시즌 첫 멀티히트」 외	주의
	경남매일	11 04 12	「日, 원전 30km밖 마을도 '계획 피난」 외	”
	서울일보	11 04 12	「최경주, 첫 메이저 우승 실패」 외	”
2011-1115	파이낸셜뉴스	11 03 28	“지구에 휴식을”…불꺼진 남산타워	주의
	한국경제	11 03 30	홍라희, 리움 관장 복귀…미술시장 활력 기대	”
	세계일보	11 04 01	내 뜻은 그게 아닌데…오해한 것 같다	”
	국민일보	11 04 04	터졌다 10호골	”
	머니투데이	11 04 05	“지방 소외 시키는 산집법 철회하라”	”
	한국일보	11 04 06	김택진 구단주 잠실 나들이	”
2011-1116	내일신문	11 04 06	방사능 우려 이후 썰렁해진 일본 어시장	”
	중부매일	11 04 06	최경주 “올시즌 그런 재킷 내가 입는다”	주의
	경남매일	11 04 08	“에멘 민주화 희망을 두 손에 모아”	”
	慶南日報	11 04 15	박찬호 오늘 첫 등판	”
2011-1134	경북도민일보	11 04 15	우즈 “지금 아닌 앞으로가 전성기”	”
2011-1136	경북도민일보	11 05 03	유럽 한류팬 300명 모여 파리 도심서 시위·SM “가수들 스케줄 고려해 1회 연장 검토”	주의
	광주매일신문	11 05 09	「바르샤, 4번째 챔스리그 품나」 외	주의
	전남매일	11 05 13	「커피 많이 마시면 유방암 위험 줄인다」 외	”
2011-1138	경남매일	11 05 16	비 “연예시장 美-아시아 동급”	”
	국제신문	11 04 29	「연아의 지젤' 오늘 밤 세계를 녹인다」 사진	주의
2011-1139	경북도민일보	11 05 09	「피겨퀸의 치명적인 유혹」 사진	”
	광주매일신문	11 05 09	「남현희 월드컵펜싱 여자 포일 금」 사진	주의
2011-1164	호남매일	11 05 12	「'헤트트릭' 호날두 36호 골」 관련 사진	”
2011-1164	경북도민일보	11 06 07	김민희, 영화 '모비딕'서 사회부 기자 성효관 역 맡아 열연	주의

결정 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 용	결정
2011-1165	호남매일	11 06 09	「5월 수입차 역대 2번째 최다 판매」 외	경고
2011-1166	광주매일신문	11 06 10	「“리듬체조 진수 보여드릴게요” 외	주의
	전남매일	11 06 10	「이번엔 ‘유황 국화’ 대량 유통 파문」 외	”
	奎光日報	11 06 14	「MBC라디오 퇴출 김홍국 1인시위 ‘마녀사냥’ 외	”
2011-1167	光州日報	11 06 02	「광주시청 기보배 ‘神弓계보’ 있다」 사진	주의
	국제신문	11 06 07	「박주영, 토트넘 이적 급물살」 사진	”
2011-1168	호남매일	11 06 01 외	「경제 총조사에 참여하세요」 사진 외	주의
	전북중앙신문	11 06 16	「도루 성공」 사진	”
2011-1187	경북도민일보	11 07 22 외	「한국관 수전 보일에 전세계 열광」 등	주의
2011-1188	호남매일	11 08 02	「윤석민, 7월 MVP 선정」 외	경고
2011-1189	광주매일신문	11 08 02	내년 최저임금 4,580원 고시	주의
	전남매일	11 08 03	「8월 임시국회 개최 놓고 신경전」 외	”
	奎光日報	11 08 04	「일본 간 박현민, 이번에는 ‘곤드레 만드레」 외	”
2011-1191	호남매일	11 08 02	「이번 대회 발판 삼아 런던 올림픽 도전」/박태환, 세계 선수권 끝내고 귀국」 사진	주의
	울산신문	11 08 03	「여 “先개최 後논의” 야 “등록금 합의부터”/한나라·민주 ‘8월 임시국회’ 신경전 여전」 사진	”
	奎光日報	11 08 08	「최지우 던지고 윤상현 치고」 사진	”
	충북일보	11 08 08	「반기문 총장님 존경합니다」 사진	”
	울산제일일보	11 08 09	「휴가철 고래바다여행선 예약 쇄도」 사진	”
2011-1209	奎光日報	11 09 05	「케냐 아벨 키루이, 마라톤 ‘금메달」 외	주의
	서울일보	11 09 08	「조광래호, 측면 수비 해법 찾아라」 외	”
	전북중앙신문	11 09 15	「야권통합 기꺼이 동참… 민주 입당 안 해」/박원순, 라디오 인터뷰 밝혀」 외	”
	전남매일	11 09 15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관리 강화/1등급 비율 10% 유지」 외	”
2011-1210	경북도민일보	11 09 15	「홍명보호, 치열한 주전경쟁 시작됐다」 사진	주의
2011-1211	경남매일	11 09 02	「바람보다 빠르게!」 사진	주의
	광주매일신문	11 09 02	「사진 속 세상/햇별이 너무 뜨거워요」 사진	”
	奎光日報	11 09 02	「힘찬 도약」 사진	”
	전북중앙신문	11 09 05	「서울시장 보선 검토 안철수 주목」 사진	”
	충북일보	11 09 05	「박수 치는 여야」 사진	”

결정 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 용	결정
2011-1231	서울일보	11 10 10	「■강재규 감독의 신작 ‘마이 웨이’/“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망 다루었다” 외	주의
	奎光日報	11 10 12	「프로농구 개막전에 ‘리듬체조’ 손연재 뜬다」 외	”
	전북중앙신문	11 10 14	「비위공무원 부당이득금 환수된다/권익위, 개선안 권고」 외	”
2011-1232	경남매일	11 10 04	「제4343주년 개천절 경축식」 사진	주의
	전남매일	11 10 04	「박영선 ‘고배’… 입지는 ‘강화」 사진	”
	호남매일	11 10 12	「‘장애물 넘고 물 건너」 사진	”
2011-1232	전북중앙신문	11 10 13	「흠런! 이 맛이야」 사진	주의
	奎光日報	11 10 13	「“FTA 강행처리, 잘못하는 것” 사진	”
2011-1257	서울일보	11 11 08	「클래식 영화 빠치는 뮤지컬 ‘스펙터클’/‘조료’ 화려한 군무·검술액션 등 볼거리 가득」 외	주의
	奎光日報	11 11 11	「2012시즌 4월 7일 ‘플레이 볼」 외	”
	광남일보	11 11 15	「“미국전 연패 우리가 끊는다”/최경주·김경태·양용은 프레지던트컵 골프 출전」 외	”
2011-1258	奎光日報	11 11 07	「브리더스컵 경마, 드로셀마이어 우승」 사진	주의
	호남매일	11 11 08	「“JY 태극기까지 준비했어요」 사진	”
	서울일보	11 11 10	「나설까 말까 ‘박근혜의 딜레마」 사진	”
	충북일보	11 11 11	「총선 청주 상당 선거전 포문 연 홍재형/“정우택, 눈치만 보던 사람”」 사진	”
	경남매일	11 11 17	「2월 쿠웨이트戰서 총력전 부담」 사진	”
2011-1279	호남매일	11 12 06	「베이징 대기오염도 ‘측정 불가’ 수준」 외	경고
2011-1280	奎光日報	11 12 06	「김병만 부친상/오랫동안 치매 앓다 4일 별세」 외	주의
	서울일보	11 12 07	「이동국, 2년 만에 또 별 품다」 외	”
	광남일보	11 12 09	「“조광래 감독 경질”」 외	”
	전남매일	11 12 09	「기아차 쏘울, 미국 판매·광고 ‘대박」 외	”
2011-1281	서울일보	11 12 06	「타이거 우즈, 2년 만에 부활 ‘포효」 사진	주의
	奎光日報	11 12 06	「박희태 국회의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진	”
	충북일보	11 12 07	「“선진경제 도약 계기”/김총리 “농어업·제약산업 체계적 지원”」 사진	”
2012-1006	광남일보	12 01 03	「지동원 ‘새해 축포’ 쏘다」 외	주의
	奎光日報	12 01 04	「“물가, 책임지는 사람 못봤다”/李대통령,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 지시」 외	”
	울산제일일보	12 01 13	「삼성·LG전자 가격담합 적발」 외	”

결정 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 용	결정
2012- 1007	경남매일	12 01 03	「총선 99일 앞으로」 사진	주의
	奎光日報	12 01 03	「1%만의 돈잔치를 점령하라」 사진	”
	전북중앙신문	12 01 04	「떠나는 故 김근태 고문」 사진	”
	호남매일	12 01 05	「이용대-하정은, 코리아오픈 16강행」 사진	”
	서울일보	12 01 13	「벼랑 끝 한나라, 재창당 놓고 내전 확산… 결국 쪼개 지나」 사진	”
2012- 1025	호남매일	12 02 03	「男농구, 올림픽 최종예선 조편성 확정」 외	주의
	奎光日報	12 02 06	「'범죄와의 전쟁' 5일째 100만 돌파」 외	”
2012- 1025	경남매일	12 02 08	「中, 티베트에 연일 '강권통치' 고삐」 외	”
	전남매일	12 02 13	「민주-통합진보 총선연대 논의 가시화」 외	”
2012- 1026	광주매일신문	12 02 03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며」 사진	주의
	대구신문	12 02 03	「“학교폭력, 반성 후 대책 내놓아야”/李대통령, 학교장과 대화」 사진	”
	奎光日報	12 02 06	「기술에 걸리지 않으려는 조준호」 사진	”
	경남매일	12 02 07	「안철수 “정치도 역할 중 하나”… 대선은?» 사진	”
	충북일보	12 02 07	「미국 드림세탁기 5대 중 1대는 'LG전자」 사진	”
	충청타임즈	12 02 07	「LG전자 드림세탁기 미국시장서 1위」 사진	”
	호남매일	12 02 10	「엑스포 현장 찾은 대표단」 사진	”
전남매일	12 02 13	「하나금융-새한뱅크 MOU」 사진	”	
2012- 1038	부산일보	12 03 08	기준금리 연 3.25% 동결	주의
	중부일보	12 03 08	승부는 그들의 손끝에서 갈린다/조성민·문태종 오늘 프로농구 PO '격돌'	”
	大田日報	12 03 09	가장 강력 태양흑점 폭발	”
	毎日新聞	12 03 12	엔겔계수 최고치	”
	경기일보	12 03 13	한국 여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
2012- 1039	광주매일신문	12 03 01	「친노-舊민주계」 정면 충돌	주의
	광남일보	12 03 05	민주-통합진보, 야권연대협상 재개	”
	전남매일	12 03 08	광주·목포 KTX 신선 '해저터널'에 달렸다	”
	서울일보	12 03 09	임신부터 출산까지 무료 관리 '화제'	”
	奎光日報	12 03 14	새누리 정진석·손숙미 등 18명 공천	”
2012- 1040	경남매일	12 03 02	「美 “6자회담 재개 시간 많이 걸릴 것”」 외	주의
2012- 1041	江原日報	12 03 07 외	「앤디 로딕의 묘기」 사진 외	주의
2012- 1042	경남매일	12 03 09	「“우리도 선거하고 싶어”」 사진	주의
	서울일보	12 03 14	「박근혜 vs 한명숙… 뜨거운 여제의 대결」 사진	”
	奎光日報	12 03 16	「“한·미 FTA 빛과 그림자 균형 맞춰야”」 사진	”

## 2.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 ▲ 2011-1130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제신문 발행인 이 정 섭

#### 〈주문〉

국제신문 2011년 5월 2일자 23면 「지는 아사다 마오, 뜨는 안도 미키」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윤○○기자

일본 피겨계의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지난달 30일 끝난 2011 모스크바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피겨 천재'로 칭송받던 아사다 마오(21)는 충격적인 몰락을 경험한 반면,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끝으로 주춤했던 안도 미키(24)는 4년 만에 다시 정상을 밟으며 화려한 재기를 알렸다.

아사다는 주니어 시절부터 김연아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을 나눠갖는 등 팽팽하게 실력을 겨뤘었다.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3위)를 제치고 2위에 올랐고, 2008년 세계대회에서는 정상을 차지했다. 김연아가 1위를 차지한 2009년 대회에서는 난조를 겪으며 4위로 처졌으나 지난해 3월 토리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자존심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아사다는 점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조차 얻지 못하는 등 다시 부진에 시달렸다.

지난해 12월 일본 선수권대회와 올해 2월 4대륙 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컨디션을 회복되는 듯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무너지고 말았

다. 쇼트프로그램에서 비장의 무기였던 트리플 악셀에서는 회전수가 부족했고, 다른 점프도 매끄럽게 소화하지 못해 58.66점의 저조한 점수로 7위로 내려앉고 말았다.

30일의 프리스케이팅에서도 부진은 이어졌다. 트리플 악셀에서 여전히 회전이 부족했고, 다른 과제에서도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사다는 종합점수 172.79점으로 6위에 머물렀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신문은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를 일부 단락을 빼거나 부분적으로 고쳐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2011-1277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 〈주문〉

全北日報 2011년 12월 7일자 15면 「이동국 ‘2011 최고의 별’ 선정」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全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스트라이커 이동국(32)이 생애 두 번째 프로축구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이동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1년 K리그 시상식에서 올 시즌 MVP로 선정됐다.

출입 기자단 투표에서 그는 총 115표 가운데 86표를 얻어 공격수 데얀(14표 · 서울)과 수비수 광태휘(12표 · 울산), 공격수 염기훈(2표 · 수원), 미드필더 윤빛가람(1표 · 경남)을 압도했다.

이동국은 2009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MVP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국내 프로축구 역사상 지금까지 개인통산 두 차례 이상 MVP를 차지한 선수는 1995년과 2001년 타이틀을 석권한 신태용(현 성남 일화 감독)밖에 없었다.

이동국은 올 시즌 전북의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우승,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주도했다.(후략) 위○○기자』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奎北日報는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의 일부 단락을 빼거나 다른 기사를 추가하는 등 부분적으로 고쳐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다른 기사들

(www.ikpec.or.kr 참조)

결정 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 용	결정
2011-1111	경남매일	11 04 08	'식탁 물가잡기' 서민 느끼게...	주의
	울산제일일보	11 04 11	■금융사별 민원 발생평가 첫 공개/대구은행 '최고' 광주은행 '최악'	"
2011-1131	호남매일	11 05 11	국산차 UAE서 인기 폭발	경고
2011-1132	全南日報	11 05 10	장사 안 돼 세금 면제 자영업자 152만명	주의
	광주매일신문	11 05 11	"민주당 집권 위해 수위라도 하겠다"/박지원 원내대표 퇴입회견... 당권 도전 공식화	"
	全光日報	11 05 11	돌아오지 않는 운암산 철새 어디로?	"
	蔚山每日	11 05 11	방카슈랑스 '고금리 저축성보험' 인기	"
	서울일보	11 05 12	SD 공천받는 순간, 수도권 전멸	"
2011-1159	호남매일	11 06 08	저축은행 사태 책임공방 '재연'/여야, 전·현 정부 질타... 국민감독委 신설 제안	경고
2011-1160	서울일보	11 06 01	KAIST... 내분 격화·융합 갈림길/혁신위 의결안 놓고 총장·교수협 정면대결 양상	주의
	경남매일	11 06 07	한나라당 全大를 갈등 심화/7일 의원총회서 신·구주류 격돌 전망	"
	全南日報	11 06 07	한나라 '전대룰' 반발 거세/채신모임 '1인1표제' '여론조사 폐지' 반대	"
	전남매일	11 06 09	김정길 "총선서 김형오와 맞대결"	"
2011-1161	중부일보	11 06 13	정다소미 女 개인전 우승 셋벌서 간판 부상	주의
2011-1183	국제신문	11 07 25 외	「벼락에 멈춰선 고속철, 안전성 타격」 외	주의
	중부일보	11 07 25	'끝내기 안타' 이병규, 이날 가장 빛난 별로 떴다	"
	부산일보	11 07 26 외	「테러범 "우리에게 2개의 세포 조직이 더 있다"」 외	"
2011-1184	全南日報	11 08 05	대우일렉, 러시아 남부 공략	주의
	全光日報	11 08 08	법원, "편법으로 거주요건 채우면 귀화 불가"	"
2011-1185	서울일보	11 08 01	"日 분쟁화 의도에 말려들면 안돼"/정부 日 의원 입국금지 후폭풍 고민... 외교마찰 우려	주의
2011-1186	호남매일	11 08 08	고깃집 눈속임 안 통한다/지경부 '고기 1인분' 측정방법 확정·고시	경고
2011-1207	중부일보	11 08 19	SK, 김성근 전격 경질...이만수 감독대행	주의
2011-1207	국제신문	11 09 02 외	「떴다 김택현, 더 멀리 난다」 외	"
	부산일보	11 09 09	오바마, 4천 470억 달러 美 경기부양안 공개	"

결정 번호	신문사명	게재일	내 용	결정
2011-1208	경기신문	11 09 07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내린다	주의
	奎光日報	11 09 08	"한나라 추구하는 복지는 '서민복지'"/홍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밝혀	"
	서울일보	11 09 09	"금리정상화는 꾸준하게 갈 것"/한국은행, 기준금리 석달째 동결... 연 3.25%	"
	대구신문	11 09 14	세계 경제 1%p 떨어지면 한국 0.95%p↓	
2011-1229	경기신문	11 10 04	50억 이상 해외계좌 보유자 199명	주의
	인천일보	11 10 04	車·정유 '호조'... 건설·철강·섬유 '고전'/4분기 산업기상도	"
	奎光日報	11 10 12	이국철 뇌물 제공 의혹 더 커져	"
2011-1230	서울일보	11 10 12	서울시장 보선 D-14 보폭 넓히는 박원순/매머드급 선대위 출범	경고
2011-1255	중부일보	11 11 08	'투수 4관왕' 윤석민 생애 첫 MVP	주의
	국제신문	11 11 14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임... 경제개혁안 가결」 외	"
	부산일보	11 11 17	오바마 비운 사이 백악관 총탄 피격	"
2011-1256	서울일보	11 11 08	국내 자동차 누적 생산 7000만대 돌파	경고
	奎光日報	11 11 08	"스마트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李대통령, 사이버 지식정보거래소 구축 제시	"
2011-1278	호남매일	11 12 06	잘리 소단베크의 '여장의 눈물' 대상/한국·중양아시아 창작 시나리오 공모전 11개 작품 선정	경고
	서울일보	11 12 07	첫 재외국민 선거 무관심 '위험수위'/4월 총선 선거인 등록 0.5% 불과...	"
	奎光日報	11 12 07	'디도스' 선관위·국정원·경찰 압박/민주당, 꼬리자르기 경우 국정조사 특검 발동	"
2012-1005	호남매일	12 01 03	민주 전대주자 "표심을 잡아라"	주의
	서울일보	12 01 14	"2012년 회의 세상으로 만들자"	"
	경남매일	12 01 04	李대통령 "고졸 취업 신속히 늘려야"	"
	奎光日報	12 01 05	민주통합 지도부 경선 전 변수 속출	"
	충북일보	12 01 06	LG전자, 가정용 최첨단 스마트기술 공개	"
2012-1024	奎光日報	12 02 02	여야, 공심위 구성 총선체제 돌입	주의
	경남매일	12 02 08	돌아오는 '밸런타인데이' 유통업체들 "한 번 붙자"/초콜릿 특별판매 돌입	"
	경기신문	12 02 09	농산물값 급등... 장바구니 '한파경보'	"
	충북일보	12 02 09	이라크 변전소 70%, LG산전이 짓는다	"
	忠淸日報	12 02 09	농협, 주택대출상품 만족도 '1위'	"

### 3.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 ▲ 2011-116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세계일보 발행인 유 종 관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4. 국민일보 발행인 조 용 기
5. 스포츠서울 발행인 정 상 태
6.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7.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 〈주문〉

문화일보 2011년 6월 9일자 2면 「“K-POP 아이돌 왔다” 파리 공항 1500명 들썩»과 6월 21일자 24면 「런던 라이브공연 마친 샤이니/“유럽팬 열정적인 무대 좋아해”」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6월 10일자 2면 「K-POP의 선율…파리를 사로잡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6월 10일자 A36면 「K팝 가수들 파리 도착…유럽팬들 환호」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6월 13일자 2면 「K팝, 유럽 흘렸다…“한국 CT시대 올 것”」 제하의 기사, 스포츠서울 6월 13일자 27면 「세계문화 한복판에 ‘KOREA’ 새겼다」 제하의 기사, 일간스포츠 6월 13일자 26면 「“피자 대신 슈퍼 주니어를 주세요”」 제하의 기사, 스포츠조선 6월 13일자 26면 「K-POP ‘태극기 응원 물결’ 장관」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위 7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문화일보)〈6월 9일자〉=『프랑스 파리가 들썩였다. 8일 오후(현지시간)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케이팝(K-POP·한국 대중음악) 가수들을 향해 프랑

스 열성 한류 팬들은 연호와 환호를 번갈아 보내며 열렬히 반겼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슈퍼주니어, 에프엑스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은 10,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에 참여하기 위해 이날 파리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프랑스 한류 팬클럽 '코리안 커넥션' 회원 700여명을 포함한 1500여명은 "윤재(동방신기의 유노윤호+영웅재중을 일컫음) 사랑해요", "샤이니가 최고" 등을 외치며 환호했고, 일부 극성 팬들은 샤이니의 '링딩동',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소녀시대의 '지' 등을 부르면서 춤을 추기도 했다.

'코리안 커넥션'의 최연장 회원에 속한다는 미셸 오노레(65)는 태극 무늬가 들어간 머리띠를 두르고 입국장 앞에서 한류 팬들을 정리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인터넷을 보고 K-POP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특히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면서 "지금은 한국 드라마와 쇼만 본다"고 말했다. 도착한 한국 가수들이 입국장을 빠져나가자, 팬들은 서둘러 셔터를 눌러대며 뒤따라가기도 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관계자는 "K-POP 가수들이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를 방문할 때 매스컴으로 지켜보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후략) 김고○○기자]

<6월 21일자>=『일본 데뷔를 기념해 영국 런던 애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룹 샤이니는 "트렌디한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를 유럽팬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샤이니는 19일(현지시간) 공연을 끝낸 뒤 일본 및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명 스튜디오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공연을 해 영광"이라면서 "스튜디오 밖에 유럽팬들이 많이 찾아와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한다"고 한류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날 5명의 멤버 가운데 고열 증상을 보인 종현을 뺀 4명만이 40여분간 공연했고 종현은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에만 무대에 잠시 올랐다. 샤이니는 "오늘 제한된 공연인데도 스튜디오 밖에 많은 유럽팬들이 모여든 것은 우리의 트

런디한 음악과 춤의 여파가 유럽에까지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에는 열정적인 안무와 함께 노래를 하는 아이돌 그룹이 많지 않아 샤이니를 비롯한 한국의 그룹들에 10대 팬들이 호응을 보낸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샤이니는 “앞으로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면 유럽팬들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후략) 김고○○기자』

(세계일보)=『K-POP 스타들의 프랑스 입성에 파리가 들썩였다.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파리’ 공연차 출국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동방신기, 샤이니, 소녀시대, 에프엑스가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부터 현지 팬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8일 오후(현지시간) 드골 공항에는 동방신기, 샤이니, 소녀시대, 에프엑스를 보기 위해 1500여명의 팬들이 몰려들어 혼잡을 이뤘다. 현지 팬들은 한글 플래카드와 다양각색의 풍선, 현수막 등을 준비해 나왔고 한국어 가사로 이들의 히트곡들을 유창하게 부르며 한류 스타들의 입국을 기다렸다.

입국장에선 한글 문구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이 새겨진 한글 티셔츠와 태극기를 활용한 응원 도구들도 쉽게 볼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항에 운집한 1500여 팬들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유럽인들로 아시아 팬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여서 SM 소속 가수들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공항 입국 게이트에 동방신기, 샤이니, 에프엑스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자 현지 팬들의 환호성은 절정에 달했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물론 동선을 따라 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프랑스 공항 경찰 30여명과 경호원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700여명의 회원을 가진 한류 팬클럽 ‘코리안 커넥션’ 회원들은 태극무늬 머리띠를 두르고 자원해서 질서 정리에 나서기도 했다.(후략) 추○○기자』

(한국경제)=『‘소녀시대 임윤아’, ‘샤이니가 좋아요’, ‘윤재(동방신기의 유노윤호+영웅재중을 일컬음) 사랑해요’, ‘f(x) 짱!’

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에는 K팝 가수의 이름들로 넘쳐났다. 프랑스 한류 팬클럽인 ‘코리안커넥션’ 회원 700여명이 각자 좋아하는 한국 가수의 이름을 새긴 티셔츠를 입거나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10,11일 ‘SM타운 라이브 월드투어’ 공연차 방문하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동방신기와 샤이니, 에프엑스를 마중하러 나온 것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한류 팬들은 5시를 넘기면서 입국장 입구를 가득 메운 채 K팝을 부르며 한국 가수들의 첫 유럽 입성을 기다렸다. 게이트가 열리고 한국 가수들이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좋아하는 스타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팬들이 몰려들고 이를 막으려는 경호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코리안 커넥션’의 최연장 회원인 65세의 미셸 오노레 씨는 “태극무늬가 들어간 머리띠를 두른 채 인터넷을 보고 K팝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며 “지금은 한국드라마와 쇼만 본다”고 말했다.(후략) 유○○기자』

(국민일보)=『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국내 최정상 아이돌 그룹들이 유럽 문화의 본고장 파리를 홀렸다. 지난 10~11일 프랑스 파리의 ‘르 제니트 드 파리’ 공연장에서 열린 ‘한국 방문의 해 기념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파리’ 콘서트가 이틀간 1만4000여명의 관객을 모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가수들은 이번 공연에서 ‘훗’ ‘왜’ ‘쏘리쏘리’ ‘루시퍼’ 등 44곡을 3시간여에 걸쳐 한국어로 선보였다. 관객 대부분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세르비아 폴란드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한류 스타의 무대를 보기 위해 찾아온 유럽인들. 가족 단위 관객도 심심찮게 보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장에 찾아왔다는 40대 가장은 “딸들 덕분에 K팝을 좋아하게 됐다. 슈퍼주니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고마워’ ‘사랑해요’ ‘피자 대신 슈퍼주니어를 달라’ 등 한글 플래카드도 여럿이었다. 태극기도 드물지 않게 눈에 띄었는데 혼드는 사람들은 한국

인이 아닌 유럽인들이었다.

성공은 시작 전부터 감지됐다. 두 차례 공연 모두 예매 시작 10~15분 만에 티켓이 동난 데 이어 10일 열린 첫 공연에서는 시작 5시간 전 이미 1000여명의 관객이 운집했다. 공연장 앞에서 밤샘을 하며 기다린 팬들도 수백 명에 달했다. 공연 전 잠시 쏟아진 소나기에도 이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비를 맞았다. 프랑스 국영방송 2TV를 비롯해 20여개의 유럽 매체와 일본 후지TV 등이 공연장을 찾아 취재에 나서기도 했다. 유럽의 대표적 음반 퍼블리셔인 윌리 모리슨은 “공연을 보며 영국에서 비틀스 공연에 열광하는 팬들을 연상했다”고 말했다.(후략) 양○○기자』

(스포츠서울)=『유럽인들의 마음속에 ‘한국’을 새겼다.

지난 10일과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르 제니트 드 파리에서 열린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파리’에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소속가수들이 이룬 뜻깊은 성과다.

K-POP의 불모지라 여겨지던 유럽. 특히 에디트 피아프와 파트리샤 카스로 대표되던 ‘상층’의 나라이자 유럽 문화의 자존심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프랑스에 한국 가요와 가수들의 위상을 높였음은 물론이고 ‘KOREA’의 존재를 깊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등 SM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한 이번 무대를 보기 위해 이틀동안 1만 4000여 유럽팬들이 몰렸다. SM측에 따르면 특히 이번 콘서트 관객들의 98%이상이 유럽 현지인들이었다. 프랑스는 물론 영국,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원정을 왔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 국기를 들고 콘서트에 참석했고. 공연장 입장을 기다리면서 SM소속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동안 한국가수들이 아시아권이 아닌 미국 등에서 해외 공연을 하면 ‘관객들 중 교민이나 아시아권 관객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의혹’ 섞인 시선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파리 공연은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킬만큼 유럽권 관객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고마워’. ‘사랑해효’. ‘우리에게 피자말고 슈퍼주니어를

달라'는 등 서툴지만 재미있는 한국어 플래카드와 태극기를 활용한 응원도구도 눈에 띄었다. 프랑스인 다비드(22)는 “너무 좋아서 할 말을 잃을 정도”라며 좋아했고. 벨기에 출신의 카롤린(21)은 “공연장에 하루 전에 와 밤을 새웠는데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다. 자주 유럽에 와 달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후략)김○○기자』

(일간스포츠)=『K-POP의 유럽 공습은 강렬했다.

지난 10일과 11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 제니스 파리(Le Zeith de Paris)’에서 동방신기·소녀시대·슈퍼주니어등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한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인 파리’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유럽에서 열린 한국 연예 기획사 최초의 대규모 단독 콘서트. 이들 동안의 공연이 1만 4000명의 관객이 다녀갔다.(중략)

공연장 주변은 마치 ‘한국 가요의 날’을 맞은 듯 했다. ‘고마워요’ ‘우리에게 피자말고 슈퍼주니어를 달라’ 등 한글응원이 적힌 플래카드는 기본. 태극기를 몸에 감은 유럽팬들은 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 등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울동까지 완벽하게재현하며 한국 팝스타들을 뜨겁게 환영했다.(중략)

공연장을 찾은 매서린(영국·23)은 “한국의 댄스음악은 다이내믹하고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음악과 댄스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어우러지는 가수는 유럽에서 찾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카롤린(21세 여자·벨기에)은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어제 파리에 도착해서 공연장 앞에서 밤을 새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인 공연이었다. 자주 유럽에 와서 공연했으면 좋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후략)이○○기자』

(스포츠조선)=『(전략) 한국어 가사와 더불어 한국 팬들로부터 아시아 저역에 전파된 특유의 응원법까지 완벽하게 따라해, 마치 프랑스 파리가 아닌 한국 또는 아시아의 공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이러한 공연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프랑스 국영방송 2TV는

물론 문화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프랑스-독일 합작 공영방송 Arte TV, 프랑스 경제 주간지 l'espress 등 20여개의 유럽 매체는 물론 일본 산케이 스포츠, 닛칸 스포츠, 후지 TV등 여러 국가의 취재진이 몰려 SM 소속 스타들의 글로벌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중략)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감동과 흥분으로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고, 관객 중 다비드씨(22·남)는 “너무 좋아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오늘 공연을 보여준 다섯팀 모두 사랑하고 최고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벨기에에서 온 카롤린씨(21·여)는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어제 파리에 도착해 공연장 앞에서 밤을 샜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인 공연이었다. 자주 유럽에 와서 공연했으면 좋겠다”며 공연의 감동을 전했다.(후략) 이○○기자』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 기사들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젊은 가수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크게 환대를 받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들을 작성한 기자들은 모두 프랑스 파리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는 파리 현지의 공황이나 공연장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유럽 각지에서 공연을 보러 온 청중들의 실명과 그들의 소감도 기사에 들어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모두 취재기자가 통신기사가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전한 내용을 받아 작성한 것임에 틀림없다. 위의 서로 다른 신문 기사에 동일한 현지 청중이 등장해 같은 소감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통신기사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서술한 문장도 자주 등장하는 점이 말해준다.

이런 경우 기사에는 당연히 출처, 즉 인용한 통신기사가 SM엔터테인먼트 등 간접 취재원을 명기해야 한다. 하지만 위 기사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가령 문화일보는 6월 9일자 기사의 상당 부분을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하고 6월 21일자 기사는 아예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면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경제 역시 연합뉴스의 기사 중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또 나머지 신문들은 서울발 뉴시스 기사와 중복하는 부분이 많다. 뉴시스 기사는 서울발이기 때문에 주최측인 SM엔터테인먼트측으로부터 기사내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머지 신문들은 SM엔터테인먼트 또는 뉴시스로부터 내용을 제공받았을 것이다. 그 같은 기사의 출처 역시 밝히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들 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현장에서 취재하지 않은 기자가 현장의 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할 때에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독자들에게 밝히지 않는다면, 신문의 신뢰는 떨어지게 된다. 또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지도 않고 마치 현장을 취재한 것처럼 독자들이 오인토록 한다면 이 역시 신문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게 되므로 신문 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①항(통신 기사의 출처명시),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③항(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4. 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

##### ▲ 2011-1112 신문윤리강령 위반

호남매일 발행인 구 양 술

##### 〈주문〉

호남매일 2011년 4월 6일자 1면 「구례 벚꽃길 ‘활짝’」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유〉

호남매일은 구례군청이 찍은 ‘구례 벚꽃길’ 사진을 구례군청으로부터 직접 전해 받았거나 뉴시스를 통해 제공받아 전제하면서 구례군이 제공한 사진임

을 밝히는 대신 자사 기자 이름을 크레딧으로 달았다.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3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2.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3. 全北日報 발행인 서 창 훈

〈주문〉

중부일보 2011년 4월 21일자 22면 「SK 정우람, 구원승으로만 3승」 제하 기사의 사진, 全羅日報 5월 12일자 13면 「전북개발공사 여 육상팀 창단」 제하 기사의 사진, 全北日報 5월 12일자 15면 「전북개발공사 여자 육상팀 창단」 제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중부일보는 SK 와이번스 홈페이지 사진을, 全羅日報와 全北日報는 전북개발공사가 제공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각각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 같은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62 신문윤리강령 위반

-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주문〉

헤럴드경제 2011년 6월 8일자 28면 「남편이 양다리? 쉬시위안 신혼꿈 확

깨네!」 제하 기사와 관련사진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 쉬시위안(徐熙媛·大S)이 중국 요식업계 재벌 2세와 초고속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가운데, 남편 왕샤오펬이의 양다리 행각이 불거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쉬시위안은 체인형 레스토랑 차오장난의 후계자인 왕샤오펬이와 만난 지 49일 만에 결혼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6일 인터넷에 왕샤오펬이와 모델 및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뤼완러우(呂婉柔·25)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에는 “정말 오래 기다렸다” “보고싶다”는 등 왕샤오펬이가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자주 식사를 했으며, 차오장난의 프라이빗 클럽인 란후이썬(蘭會所)에서도 밀회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두 사람이 이 같은 문자를 주고 받은 시기가 왕-쉬 커플의 열애설이 나고 결혼을 준비 중이던 때와 일치해 충격을 주고 있다.

뤼완러우는 완벽한 ‘에스(S)라인’ 몸매의 소유자로 태국에서 섹시화보집을 찍은 후 현재 홍콩 연예계 진출을 준비 중이다. 홍콩의 소식통에 따르면 왕샤오펬이는 마작게임을 하다 지난해 6월 뤼완러우와 알게 됐고, 이후 식당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문자메시지가 누군가에 의해 폭로된 후 뤼완러우는 대만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왕샤오펬이가 양다리를 걸친 게 사실이다. 내가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쉬시위안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두 사람은 사업 때문에 결혼했다. 그의 어머니 장란(張蘭) 차오장난 회장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그의 결혼으로 나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뤄는 “쉬시위안이 나와 왕샤오페이와 관계를 알게 된 후 대노했다고 들었다. 그녀는 왕을 꼭 잡고 산다”고 말했다.

뤄완러우의 마이크로블로그에 왕샤오페이와 찍은 사진이 올라왔으나, 쉬시위안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쉬시위안은 지금까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베이징왕은 전했다. 하지만 쉬의 모친은 “과거의 일은 얘기할 만한 게 못된다. 별 거 아닌 일이고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두 사람은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다”고 대꾸했다고 한다.

또 쉬시위안이 마이크로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삭제하도록 시켰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딸은 누군가의 휴대폰을 훑쳐보거나, 몰래 삭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란 회장은 아들의 양다리 의혹에 대해 “뤄완러우를 알지도 못하며 전부 헛소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은 홍콩과 대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예인과 재벌2세의 애정행각에 대해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현지에서 취재를 하지 않았다.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려면 외신을 통해 간접취재를 하는 수밖에 없다. 또 그럴 경우는 기사의 출처를 밝혀야만 한다. 하지만 이 기사는 그 어디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 기사에 게재한 관련 사진 2건 역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남의 기사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③항(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90 신문윤리강령 위반

中都日報 발행인 김 원 식

〈주문〉

中都日報 2011년 7월 21일자 8면 「“시즌 초 1위 위상 되찾겠다”」 제하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中都日報는 대전시티즌이 제공한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 같은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59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중앙일보 2011년 11월 16일자 19면 「박원순 시장, 60대 여성에게 폭행 봉변」 제하의 관련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사진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사진은 서울시 측에서 촬영해 각 언론사에 배포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 일보는 다른 신문들과 달리 이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 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4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2.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3.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문〉

일간스포츠 2012년 3월 10일자 23면 「“창살없는 감옥 8년…일상이 무너졌다”/JY 남미 단독 콘서트’ 앞두고 사생팬 폭행 논란 입장 밝혀」 제목의 관련 사진, 스포츠경향 3월 10일자 8면 「“우는 男, 뽀뽀하는 女 … 이런 팬들 처음”」 제목의 관련 사진, 머니투데이 3월 12일자 22면 「“K팝이 왔다” 레계의 본고장이 들썩」 제목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이 게재한 JYJ의 남미공연 현장 사진은 모두 주최측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자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나 중간에서 사진을 전송한 연합뉴스를 밝히지 않은 것은 저작권 보호에 어긋나는 제작 태도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